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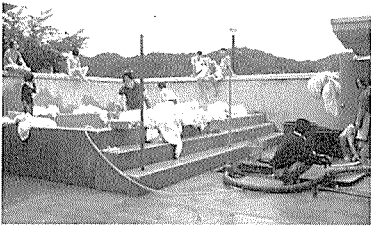
용에 대해 회원들간 토론회도 가졌다. 또한 회원들은 견학이 끝난후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튿날인 14일에는 소쇄원과 식영정, 운주사, 내소사 등 광주 일대의 고건축을 답사했다. 견학을 마친 여성건축사들은 비록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회원간 친목을 다지며 전문가적 시각에서 현장경험도 쌓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견학에 참가한 여성건축사들

청주 「가람산우회」, 불우이웃 찾아 봉사 활동

산우회원 30여명 장애인시설 「성보나의 집」 일일봉사



「성보나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람산우회원들

IMF시대를 맞아 사회가 점차 각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건축사회 가람산우회(회장 장현석)가 장애인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여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들 가람산우회 회원과 가족 등 30여명은 지난 7월 19일 청원군 가덕면의 정신장애인 수용시설 「성보나의 집」을 찾아 이불빨래와 청소 등 장애인들이 직접하기 어려운 일들을 돕고 일을 끝낸

후 장애인들과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가람산우회는 청주시내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 직원 35명이 모여 지난 95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등산을 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장애인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대지와 건물의 이용도 높여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종전에는 건축물을 10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시설군간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해 신고만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최소한의 대지규모를 정해 최소 규모에 미달된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내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신설돼 건축사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공사감리에 있어 도시설계지구 건축사확인 건축물의 감리보고서를 확인건축사에 제출토록 했던 규정을 삭제했으며 건설교통

부장관이 "건축허가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건축허가시 검토를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했다.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허가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허가토록 절차간소화함(제8조제1항)
-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의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제8조 제10항)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을 10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시설군간의 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개 시설군으로 축소하고, 신고만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제14조 제1항)
- 현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피난, 방화내화 등을 위한 건축기준중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설계기준으로 고시하도록 법령을 단순화하고 신기술을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함(제39조 및 제55조 제59조)
- 종전에는 용도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최소한의 대지규모를 정하여 최소 규모에 미달된 대지에는 건축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용함(제49조)
-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일조기준을 폐지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함(제53조)

〈입법예고시 신설 및 변경된 내용〉

- 제2조(정의)
- 제3호: 건축설비의 정의에 "정보통신시설" 추가토록 수정됨
- 제4호: 지하층의 정의에서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
- 제6호: 주요구조부중 "벽"을 → "내력벽"으로 수정

- 제8조(건축허가)
 - 시장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착수기간을 기간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8항 개정) → 1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토록 수정(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됨)
 - 도시설계수립구역에서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건축가능토록 함(제10항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로 한정함(입법예고시 범위한정).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허가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건축허가시 검토를 건교부장관에게 요청토록 함(제3항/ 입법예고시 신설됨/ 협회의견 반영).
-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5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용승인기준" 고시토록 함(입법예고시 신설됨/ 협회의견 반영).
- 제19조(건축물의 설계)
 - 건축사협회가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했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고시」토록 개정(입법예고시 개정안 제시됨)
- 제21조(공사감리)
 - 도시설계지구 건축사확인 건축물의 감리보고서를 확인건축사에 제출토록 했던 규정 삭제(입법예고시 현행대로 수정됨/ 협회의견 반영).
- 제50조의2(합벽개발 및 연결복도): 입법예고시 신설
- 제68조(감독)
 - 제4항 신설: 행정건설화 대책 수립
- 제68조의2(건축제도위원회): 입법예고시 삭제됨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내용 요약〉

-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 ... 3인 이상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
- 제2초의2(소위원회) 신설
 - ...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소위원회 구성.
 - ... 분야별(계획/구조/설비/조경 등) 소위 구성.
- 제6조(건축허가 신청 등)
 - ...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변경.
- 제8조(건축허가서 등)

- ...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변경.
- 제12조(건축신고 등)
 - ... 공작물의 축조신고서류를 간소화(제5항 제1호 삭제).
- 제13조(가설건축물)
 - ... 가설건축물대장 건축주 열람 조항 신설.
- 제21조(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 제외(제2항 제2호 제외).
- 제33조의2(비상탈출구 구조기준) 신설
 - ... 화재 등 유사시 지하층의 피난에 필요한 비상탈출구 기준 정함.

「MBC 일산제작센터 설계경기」 추진 보류

건축3단체 설계경기운영위원회, 문제가 된 응모지침 내용에 대해 MBC에 시정 요구

설계경기 응모지침이 문제가 됐던 (주)문화방송의 「MBC 일산제작센터 설계경기」 추진이 보류됐다. 앞서 건축3단체 건축설계경기운영위원회는 (주)문화방송이 지난해말부터 추진해온 일산제작센터 설계경기의 응모지침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현행 설계경기 규정을 무시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판단하에 문화방송측에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설계경기운영위원회는 이번 설계경기의 응모지침 내용중 ▶설계규모에 비해 설계일정이 촉박해 실제 설계기간이 2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고 제출도서가 지나치게 많은 점 ▶응모지침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설계용역비 견적서를 제출토록 한 점 ▶건물외부조명, 음향설계, 구조설계 등에 대해 해외 설계협력업체를 지정해 확인을 받도록 한 점 ▶사전에 용역수행 프로젝트팀을 구성토록 강요하고 있는 점 ▶해외자료조사시 발주처 인원 8명의 여행경비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비를 설계자가 부담토록 한 점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심사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원회는 ▶조감도에 부지전체를 표현하라는 것은 설계범위에서 벗어난 요구이며 이밖에 무제한의 프리젠테이션을 요구하는 것도 불필요한 낭비와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3단체 건축설계경기운영위원회는 앞서 (주)문화방송에 문제가 된 응모지침 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문화방송측으로부터 일체의 입장표명이 없자 3단체 명의로 각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동경기에 불참토록 촉구하고 또 대표단이 문화방송을 직접 방문해 관계 책임자로부터 직접 경위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장인 MBC 장영배 국장은 공고가 나간 지 오래돼 뒤늦게 시정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동경기에 불참하는 건축설계사무소가 많아 동설계경기 추진에 지장을 받았으며 차후로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협회 등 건축3단체의 회원들은 이번 문화방송의 설계경기 응모지침이 선진국의 설계경기규정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설계경기운영지침과 크게 상치되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처사라며 이번 설계경기에 불참해 왔다.

(주)동우건축, ISO 9001 인증 획득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체제 도입

건축설계 및 종합감리전문회사인 (주)동우건축(대표 강철구)이 영국의 인증기관인 EQA로부터 ISO 9001 인증을 취득했다. (주)동우건축은 지난 7월 1일 오구공방(주)와 동우설비기술사사무소, 동우구조기술사사무소 등 동우건축그룹의 다른 3개사와 함께 ISO 9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동우건축 그룹은 (주)동우건축을 비롯해 앞서 지난해 인증을 취득한 (주)오구종합건설 등 건설관련 5개 그룹사 전체가 명실공히 ISO품질경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주)동우건축 등 이들 5개사는 한국표준규격인 KSA 9001, 영국표준규격인 BS, 유럽표준규격인 EN을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건설분야의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감리, 인테리어, 건물 관리, 기술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토탈시스템을 갖추게 돼 조직간 시너지효과를 기하고 있다. 특히 (주)동우건축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경영체제의 정착과 기술증대를 통해 제2창업의 계기로 삼고자 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주택건설감리비지급기준 고시

상한선은 총 공사비의 2.5%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6일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감리대가의 상한선은 총 공사비의 2.5%로 하며 감리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감리인·월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총공사비(원)	20억이하	30억	50억	100억	200억
감리인·월	8.5	12.4	20.2	39.3	76.1
총공사비(원)	300억	500억	1,000억	2,000억	3,000억
감리인·월	113.3	183.0	328.0	559.2	764.2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99학년도 특별전형 신입생모집

건축학과 졸업자 및 예정자 대상
시험과목은 영어와 면접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99학년도 특별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특별전형은 건축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어(토플식)시험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오는 10월 9일에 시험과 면접을 치룬 후 같은 달 13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사학위등록 사본, 추천서, 주민등록등본(남자는 초본) 각 1부와 사진(5×5.5) 3매이다.

한편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의 일반전형 신입생 모집은 오는 11월초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전형은 건축관련학과 졸업생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한 2년과정과 건축이외 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한 3년과정으로 구분해 작품집 및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문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전화 02-390-5245~6)

서울건축학교 98/99년 제1쿼터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은 20명, 8월 29일까지
원서교부

김수근문화재단 부설 전문교육기관으로 미래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건축학교가 98/99년 제1쿼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건축학교는 연간 3쿼제의 설계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각 스튜디오 튜터에 의해 작성된 자율적 교육 프로그램에 맞춰 금요강좌, 건축가 세미나

나, 건축기행 등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총 6쿼터의 소정 스튜디오 과정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신입생 모집요강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응시자격: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건축설계사무소 경력 3년 이상자, 국내외 대학원 건축관련 학위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 원서교부: '98. 8. 16 ~ 8. 29
- 원서접수: '98. 8. 20 ~ 8. 29
- 전형: '98. 9. 1 ~ 9. 8
-1차: 서류, 포트폴리오 심사
-2차: 면접(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 등록: '98. 9. 9 ~ 9. 12
- 문의: 서울건축학교 (02-763-0471, 747-3046)

'탈식민성' 주제로 대규모 건축비평/답사

현실비평, 90년대 주요 건축물 및 건축가 대상으로

양케이트로 선정된 90년대 국내 주요 건축물을 직접 답사해 현장에서 건축가와 의 토론을 통해 한국현대건축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 건축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대규모 건축비평 행사가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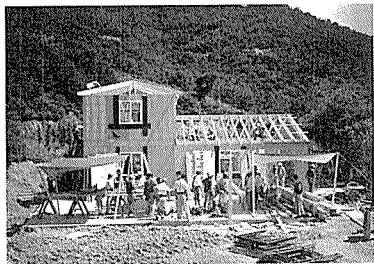
'탈식민성-한국현대건축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를 가지고 현실비평연구소(대표 조권섭)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故김수근·김중업과 현업 건축가중 김낙중, 김석철, 김영섭, 김영웅, 김 원, 김인철, 민현식, 방철린, 승효상, 이성관, 이일훈, 이종상, 조건영, 최동규 등 총 16인의 건축가와 이들의 대표작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99년말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마다 실시된다.

이번 건축비평/답사에서는 답사대상 건축물의 건축가가 참여해 직접 설계의도를 설명하고 2~3명의 젊은 건축가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

로 진행된다. 오는 8월 9일에 있을 첫 번째 답사에서는 건축가 권문성, 김승희씨 등이 패널로 참여해 「씨네플러스」, 「JACE II」, 「청규헌」을 찾아 이들 작품의 설계자인 김낙중씨와 토론을 벌인다. 한편 주최측은 앞서 지난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도 일영에서 이번 비평/답사의 오프닝행사를 개최했다. 밤새 진행된 이날 오프닝에서는 김영민(한일대 교수), 우종훈(건축비평연구가), 김병윤(백제예술대 교수), 이정호(대구대 교수) 등 9인 강사의 '탈식민성', '한국현대건축과 비평사' 등을 주제로 한 강연과 비디오상영, 종합토론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문의: 현실비평연구소(02-376-7775~6)

미국임산물협회, 장애인재단에 목조주택 기증

목조건축학교 교육생들이 2주간에 걸쳐 완성한 40평규모 주택 「밀알재단」에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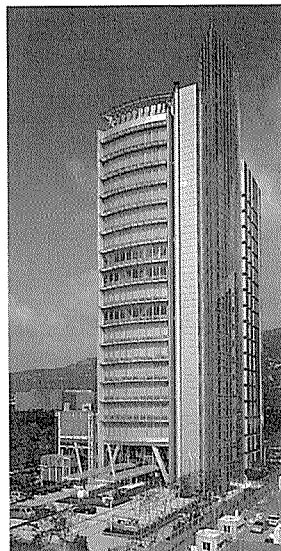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가 장애인시설인 밀알재단에 40평규모의 2층구조 목조주택을 기증해 미담이 되고 있다. 기증된 목조주택은 미국 임산물협회가 한국목조건축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29일부터 개설한 '제3회 목조건축학교'에 참가했던 50여명의 교육생들이 2주간에 걸쳐 땀흘려 완성한 현장 실습작품이다. 특히 이 목조주택은 국내 목구조기술의 전문가들과 장상식 교수(충남대), 박문재 박사(임업연구원)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매일 14시간씩의 강도높은 실습과 이론교육을 통해 일궈낸 완성도 높은 목조건축물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미국임산물협회는 매년 목조건축학교를 통해 완성된 주택들은 불우시설과 학교에 기증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충남 청원군의 「소망의 집」에 기증해 현재 공공모임장소와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POSCO 강구조작품상 금상에 '코오롱타워'

간·삼건축 설계작으로 "구조디테일 경쾌"



과천 코오롱타워

한국강구조학회가 주관하고 포스코가 후원한 '제5회 POSCO 강구조작품상' 심사결과 과천 '코오롱타워'가 금상을 차지했다. 총 37개 작품이 응모한 올해 강구조작품상에는 금상 1점과 은상2점 등 총 7개 작품이 상을 받았다. 금상을 차지한 과천 코오롱타워는 메인 오피스 부분을 Preflex Beam을 도입해 무주공간으로 처리하고 아트리움 전면을 유리 및 메탈로 구성되는 SPG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심사위원들로부터 구조디테일의 경쾌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한편 ▶은상은 신호대교(서영기술단 조선규)와 청주국제공항(센구조연구소 이창남, 원도시건축 윤승중·변용)이 ▶동상은 롯데스카이(센구조연구소 이창남, 일건씨앤씨 최관영·정동영), 부산광역시 신청사(C.S구조엔지니어링 김종수, 일신설계 이용흠), 분당 삼성프라자(센구조연구소 이창남·, 원도시건축 윤승중·변용) 등 3개작품이 ▶특별상은 광양 백운아트홀 조형육교(POS-A.C 심인보)가 차지했다.

'지구촌시대의 새로운 건축문화' 학술강연

건축학회, 美위스콘신대 아모스 라포포트 교수 초청 강연

대한건축학회 주택분과위원회(위원장: 임창복 성균관대 교수)는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학회 대강당에서 미국 위스콘신대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 교수 초청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 주제는 '지구촌시대의 새로운 주거문화(New Housing Culture in the Globalization Era)' . 문의: 대한건축학회 사무국(02-525-1841~4)

건축신간 안내

경쟁력 있는 설계사무소 만들기 10 사진에 담긴 세계문화기행-유럽편(상) 「종묘」 사진집 건설계약관리와 클레임 해결

◇ 경쟁력 있는 설계사무소 만들기 10 IMF이후 많은 설계사무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사가 직접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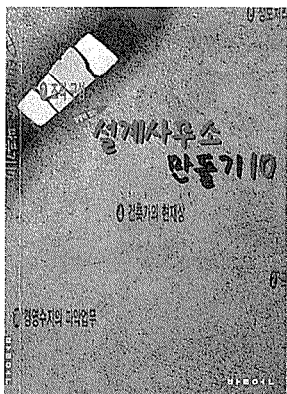
계사무소의 경영 및 운영방법에 대한 경영론을 출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필자인 이윤하(건축사사무소 노뚝돌 대표)씨가 책머리에서 “건축사의 직능과 가치가 사회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고, 건축사가 명실상부한 직업으로서 확립될 수 있기 위한 올바른 경영방법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논지라고 밝혔듯이 이 책 곳곳에는 프로페션의 이념에 기초한 건축사의 이상과 현실의 모순된 상황에 의한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필자는 또한 이 책을 통해 건축창조예의 정열을 지속시키는 인간적이고 직업적인 뿌리를 해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의 전반부(1~5장)는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영과 그것을 둘러싼 사회환경에 관한 총론을 담고 있으며, 후반부(6~10장)는 경영의 제 문제들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건축을 지향하는 학생들의 시야가 일부 천재적 건축사들의 화려한 활약에만 현혹돼 그 엄숙한 전문가의 길로 잘못 들어서는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로 성장하기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지도와 노력 그리고 자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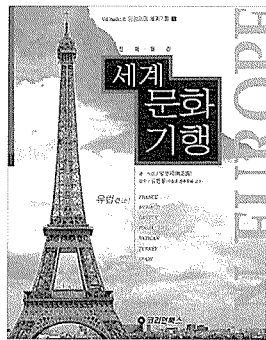
이윤하著 / 도서출판 발언(02-929-3546) 펴냄 / 216쪽 / 1만원



◇ 사진에 담긴 세계문화기행 유럽편(상)
포토저널리스트로 지난 20여년간 도시와 건축물에만 천착해온 임정의씨가 유럽 각지를 발로 누비며 체험한 건축예술의 정수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한 책이 출간됐다. 이 책에 수록된 250여 점의 컬러사진과 그림은 마치 독자 자신이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프랑스,

모나코,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바티칸, 스페인 등 국가별 총 7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그리스·로마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남유럽의 전통도시와 빼어난 건축물들을 자세히 살피고 있어 고대 신전에서부터 금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불리는 가우디의 걸작품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건축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준다. 한편 곧이어 발간될 이 책 하권에서는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기에 등 동·북유럽의 도시와 건축물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임정의著 / 코리언북스(02-313-3200) 펴냄 / 변형 4×6배판, 반양장 제본 / 360쪽 / 1만 5천원



◇ 「종묘」 사진집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삼성문화재단에서 3년여의 준비 끝에 종묘의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조명한 「종묘」 사진집을 발간했다. 종묘는 장중한 건축미와 신성한 제례의식으로 지난 95년만에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삼성문화재단은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직후부터 2년여 동안 종묘의 구석구석을 앵글에 담은 한편 사계 권위자와 함께 각종 문헌과 사료를 분석해 종묘연표를 작성



하고 또한 종묘의 건축구조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도면을 CAD로 작성해 사진집에 수록해 놓았다. 총 70여 컷의 사진이 수록된 이 사진집에는 특히 종묘의 우수성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종묘의 역사와 건축미, 종묘제례에 대한 영문해설이 첨부돼 있다.

삼성문화재단(02-750-7888) 발행 / 33.5×25cm / 양장 제본 / 162쪽 / 12만원

◇ 건설계약관리와 클레임 해결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계약상의 쟁점을 제시한 책이 출간됐다. 이 책은 실제 판례와 기준에 발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세대 백준홍 교수가 건설현장에서의 경험과 그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쓴 책이다. 이 책은 계약일반론, 발주자, 건축가, 시공사, 클레임 해결 등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1부 계약일반론에서는 계약의 정의·성립·위반·소멸 등에 대한 용어정의와 사례 등을, 제3부 건축가에서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문설계 용역, 전문가 책임, 위험관리 등을, 제5부 클레임 해결에서는 건설계약시 클레임의 해결, 설계변경, 금전전 보상문제, 분규해결, 클레임 방지대책 등으로 세분화해 다루고 있다.

백준홍著 / 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

